

# ‘무릎 꿇고 호소’ 강서특수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시민단체, 교육청과 갈등 마무리  
입장문 “조희연 교육감 선의 확인”  
조 교육감 “한방병원확정 아냐”

특수학교반대단체, 합의문 관련  
문제 제기 가능성 등 재논란 우려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맺은 ‘특수학교 설립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전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무릎 호소’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서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1년 만에 다시 논란을 거듭하다 일단락됐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 강서 국립한방병원 건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 ◆장애학생 학부모 뺄놓는 ‘합의’

1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교육학부모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는 ‘강서특수학교 건립 협약서 사태’에 관한 시민단체 입장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선의를 인정하고 교육청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면담과 해명글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와 취지가 선의임을 확인했다”며 “한 사람의 반대사도 빼놓거나 무시하면

안된다는 교육감의 평소 소신을 생각하면 그러한 의도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해온 단체(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강서를 지역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나오자 반발해왔다. 합의서에서 강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되 한방병원 유치에 협력한다는 ‘대가성 합의’가 자칫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로 공식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날 재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8월 공사착공을 했지만 공사 지연 가능성 등이 나오고 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 특수학교 신축 공사가 매우 곤란해지겠다는 판단으로 합의문을 추진했다”며 “그과정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찬성해 왔던 주민과는 협의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강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김

성태 의원, 특수학교 건립 반대 단체 등과의 합의문에 관한 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추후 재논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폐교한 공진초등학교 자리에서 지난달 6일 첫 삽을 떠 내년 2학기 개교가 목표다.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신설된 것은 지난 2002년 경운학교 이후 17년만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시내 전 지역에 수요조사 등을 근거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예정 부지도 불투명

강서를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이 공약한 한방병원 건립 여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다. 한방병원 부지로 거론되는 공진중·영감초 통폐합은 물론 병원건립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방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서울시교육청의 권한 밖이기도 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학교 통·폐합과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주민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사안”이라면 서 한방병원 건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이 지난 4일 합의문에서는 “인근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들 역시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한방병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무상 부지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한방병원 부지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합의를 함으로써 김성태 의원의 한방병원 공약을 듣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방병원 건립은 김성태 의원 개인의 공약일 뿐, 지역사회의 합의나 지역자치구의 계획에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지 한방병원 건립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통폐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고, 나아가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한방병원을 지어줘야 하고 그 때문에 멀쩡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식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직장인 절반 “명절에 차라리 출근하고파”

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776명 설문  
男 ‘지출 부담’·女 ‘집안일 스트레스’

추석 연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 절반은 명절 연휴에 차라리 출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출 부담과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으로 파악됐다.

12일 미디어월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7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1%가 ‘명절 연휴 출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명절 연휴 출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는 응답은 여성(56.4%)이 남성(47.3%)보다, 기혼자(53.5%)가 미혼자(51.4%)보다 많았다.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32.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9.1%),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26.7%), ‘명절 연휴 후 밀려있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9.7%), ‘연휴가 짧아 고향에 못 가기 때문’(1.9%)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명절 지출’(32.9%)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여성은 ‘명절 집안일 스트레스’(41.7%)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용수 기자

## 효성, 하반기 500명 채용... 27개 대학서 설명회

3일 한국외대 시작, 20일까지 진행

효성은 2018년 하반기 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전국 27개 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일 한국외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채용 설명회는 오는 20일까지 고려대, 경북대,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전국 27개 대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효성은 올해 하반기에 약 500여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대상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학점, 외국어, 연령 등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입사지원서는 27일 18시까지 효성 그룹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효성이 오는 20일까지 주요 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실시한다.

/효성

한편 효성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20일까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올려드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효성 캠퍼스 리쿠르팅 참석 인증샷을 찍어 올리거나 웹진 사전 구독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김유진 기자 uj@6326

### 대학가 소식

#### 한성대 복학생 위한 워크숍 진행

한성대학교는 2학기 개강을 맞아 공백기가 있었던 복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리턴 두 한성 워크숍’을 교내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빨리 적응하도록 워크숍을 통해 민원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학교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내 교육혁신원, 학생처 취업지원팀, 진로상담부 등 부서 협력을 통해 달라진 학사제도나 장학제도, 진로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학기 참가 학생 대상 만족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았다.

박성재 교육역량개발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진로취업준비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는 등 시너지 효과도 확인됐다”며 “향후 복학생 희망 강의나 비교과 점수 추가 등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 시원스쿨 일본어 온라인교육 부문 한국브랜드선호 1위 수상

시원스쿨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 신사동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시상식에서 시원스쿨 일본어가 온라인교육 일본어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원스쿨 일본어는 외국어 학습 콘텐츠 서비스 전문기업 (주)에스제이더블유 인터내셔널이 론칭한 시원스쿨의 제2외국어 일본어 교육 브랜드다. 기초 회화부터 JLPT시험까지 오직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일본어만 12년 이상 학습하고 연구한 전문 연구원들이 포진한 시원스쿨 일본어 전문 연구소가 직접 강의교재와 학습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시원스쿨 일본어는 왕초보탈출 강의부터 여행일본어까지 총 1739강이 수록된 시원스쿨 전강좌 패키지(올킬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서울 교직원 28% “부당한 업무지시 당해”

서울시교육청 45% “이의 제기”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 10명 중 3명은 과도한 업무전가나 인맥에 의한 인사, 개인 심부름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산하 전 기관에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시교육청과 학교 등 전체 구성원의 10.5%인 859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했다’고 했다. 10명 중 1명꼴인 10%는 ‘부당한업무 지시를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업무지시의 분야는 ‘업무분장’(33.3%)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인사’(15.7%), ‘예산집행’(12.8%) 순이었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지시 분야는 12.8%

로 나타났다. 거론된 사례로는 업무를 전가하거나 상급자 인맥에 의한 인사나 근무평정·성과급의 불공정 등이 많았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자료 작성이나 복사 등 자질구래한 심부름 등 갑질 사례도 많이 나왔다.

응답자의 44.8%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13.3%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하지만 34.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부당지시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년 미만 경력자 중 42%로 경력이 짧을수록 많았다.

부당지시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 등 관행’을 지목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책임회피 및 복지부동’(26%), ‘윤리의식 부족’(1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광운대 화학공학과 91학번인 (주)이레머티리얼스 손정안 대표(왼쪽)가 지난 11일 광운대 총장실을 방문해 유지상 총장에게 ‘광운사랑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광운대학교

#### 광운대 동문 기업인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광운대(총장 유지상)는 (주)이레머티리얼스 손정안 대표가 지난 11일 총장실을 방문해 ‘광운사랑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대표는 이 대학 화학공학과 91학번 동문이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ICT를 이끌어온 광운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낼 수 있어 기쁘다”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향후 지속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